

# 開化期 國語・國文運動의 樣相과 特徵

강 영 선\*

## 차 례

1. 序論
2. 開化期 國語・國文運動의 樣相과 特徵
  - 2.1. 國語・國文運動과 文體의 發達
  - 2.2. 正書法의 確立과 國語・國文整理運動
3. 結論

## 1. 序論

15세기 중엽 訓民正音이 창제된 뒤의 우리나라의 문자사용을 되돌아 볼 때, 한문이 여전히 主宗을 이룬 가운데 한글은 (1)諺解 (2)詩歌 및 散文 (3)內簡 등에 사용되었다. (1)에서는 原文(漢文)의 토와 諺解文에 한글이 사용되었는데, 언해문에 한자가 混用되기는 했으나 그 음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杜詩諺解에서 한자음이 표기되지 않은 사실과 16세기에 들어 呂氏鄉約諺解, 正俗諺解 등에서 원문에는 口訣을 달고 언해문은 한글만으로 표기한 사실이 주목된다. (2)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에 의해서 대표되는 초기의 詩歌 表記 역시 한글과 한자의 혼용체였으나 용비어천가에는 한자음 표기가 없고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보다도 그 음을

\* 제주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먼저 大字로 표기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뒤, 가사 및 시조의 표기도 대개 국한문 혼용체로 표기됨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책(소설)들은 국문체로 표기됨이 일반적이었다. (3)의 內簡은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국문체로 되어 있다.<sup>1)</sup>

국문체의 기반은 18·19세기로 올수록 점점 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전반까지는 국문 사용이 줄곧 확대되어, 시가나 소설 작품이 국문으로 풍부하게 창작되어 널리 읽혔고, 산문 기록에도 국문으로 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인 글은 한문을 사용했고, 사상을 논하는 산문 또한 한문의 영역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甲午更張을 前後하여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開化에 눈을 뜨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문만을 숭배하고 우리글을 諺文이라 하여 賤視하던 우리 민족도 自覺하여 우리글을 國文이라 부르고 또 이것을 公文書나 모든 문서에 공공연히 썼을 뿐만 아니라, 국어·국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도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는 바로 이 開化期에 文體의 發達과 國語·國文整理運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국어·국문운동의 양상과 그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開化期 國語·國文運動의 樣相과 特徵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문물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자, 종래의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자사용은 公用文書에서 한문을 專用해 오던 전통(일부 예외는 있음)에서 벗어나 國語愛用運動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인 국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면으로 관심이 바뀌었다. 국어를 사랑하자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諺解類 등에서만 쓰이어 왔던 國漢文混用體를 널리 쓰자거나, 國文 專用 또는 言文一致生活을 하자는 운동으로 번져 나가

1) 이기문(1984), 「開化期の 國文使用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 5, pp. 65~66.

게 되어, 우리 국어에 관한 연구와 체계적인 正書法 마련 등에 마음을 쏟게 되었다.

## 2.1. 國語·國文運動과 文體의 發達

이 시기의 국어·국문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는 이봉운이 당시 이미 순국문으로 저술된 『국문정리(國文整理)』(1897)의 서문에서, 세계 각국이 다 제 나라 제 글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어·국문 애용이 곧 애국이라고 力說한 대목에 잘 나타나 있다.<sup>2)</sup> 또 周時經은 언어가 意思疏通을 통하여 사회를 조직하며 문화를 만들어 내고, 문자가 이를 지역적·역사적으로 傳承하여 인간의 ‘大事’인 문화적·사회적 업적을 축적하여 人間生活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이 언어가 조직하는 社會一般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조직된 것이 민족이며 민족이 독립된 것이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문자의 독립이 민족 국가의 독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민족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언어와 문자가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이 국어·국문의 연구 발전 보급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아 그의 독특한 語文民族主義思想을 전개하게 되었다.<sup>3)</sup>

국어·국문 애용 운동의 先驅者는 유길준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學部大臣으로 있으면서, 1894년에는 “모든 법률과 명령을 모두 국문으로써 본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혹은 국한문을 混用함”이라는 칙령<sup>4)</sup>을 발령하도록 하였으며, 1895년에는 스스로 국한문혼용체로 된 『西遊見聞』(실제로는 1889년에 완성되고 1895년에 간행되었다.)을 저술하는 한편 학부에서 편찬하는 교과서도 국한문혼용체로 하도록 하였다. 1885년(고종 22년)에 서양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을 비롯하여, 1895년 이후 京鄕에 많이 설립된 각종 國公私立學校에서도 국어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쳤는

2) 강신항(1992),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pp. 184~185.

3) 신용하(1977), “周時經의 愛國啓蒙思想”, 『한국사회학연구』 제1집 참조.

4) 1894년 11월에 고종이 내린 칙령을 말한다.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데, 다른 교과서들도 국한문혼용체의 글이었다. 한편 같은 해에 James S. Gale의 『턴로력정』이 국문체로 간행되고 그 이듬해에 學部の 『泰西新史』가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896년에 서재필,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창간한 『독립신문』은 국문만으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있어 하나의 대담한 실험으로 우리나라 문자사용의 역사에서 特記할 만한 사실의 하나였다. 온 지면을 漢字가 한 글자도 없는 순국문으로 채움으로써, 갑오경장 이후 名目上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체로 지목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국문체의 기세를 드높인 것이다. 아마 서재필과 주시경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담한 시도였다. 주시경이 이 신문사의 ‘總務兼校補員’의 일을 맡고 있었으니 이 신문의 국문은 사실상 그가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재학당 학생들의 모임이었던 협성회의 기관지인 『협성회회보』(週刊)가 1898년 1월에 간행되고 4월에 『미일신문』(일간)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해 3월에 독립협회장 윤치호가 『경성신문』(주 2회)을 창간하고(4월에 『대한황성신문』으로 改題) 8월에는 李鐘一이 『대국신문』을 창간하였다. 이 모든 신문이 국문체를 택함으로써 신문의 문체는 국문체로 굳어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1898년 9월에 『대한황성신문』이 『皇城新聞』으로 改題되면서 국한문체의 일간지로 탈바꿈하였다. 이것은 장지연, 유근 같은 유학자들이 관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겠지만, 이 때에 관용 공문을 비롯하여 학교 교과서 등에 널리 사용된 국한문체가 신문에 침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 독자층들이 대부분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취향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몇 해 동안 우리나라의 신문에는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양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4년 8월 국한문체를 채택한 『大韓每日申報』가 간행됨으로써 그 뒤 우리나라 신문의 문체를 국한문체로 기울게 하였다. 이는 국한문체 신문과 국문체 신문의 독자층이 달랐던 것인데, 국한문체의 독자층이 유력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문체의 독자층도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大韓每日申報』는

1907년 5월에 국문판을 따로 발간하였다. 이 국문판이 국한문판에 附隨의 인 것이었고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했으나 그것을 낸 것은 국한문체만으로 진정한 민중의 벗이 될 수 없음을 이 신문 刊行者들이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잡지는 대부분이 국한문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특별한 뜻으로 국문체의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西友學會의 월간호 「西友」(2호, 1907)에 실린 주시경의 「국어와 국문의 필요」를 비롯한 몇 예를 들 수 있다. 尙洞青年會의 「가명잡지」는 완전히 국문체를 채택하였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음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諺文이 부녀자의 글이라는 전통적 통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최남선이 간행한 「少年」에 국문체의 글이 많이 나타남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제1년 제1권에 실린 「巨人國漂流記(一)」은 국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2권의 「巨人國漂流記(二)」는 국문으로 되고 괄호 속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나 제2년 제2권에 실린 「로빈슨 無人絶島 漂流記」는 국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잡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들이 한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官用 公文에서는 1894년 11월 고종이 내린 칙령(法律勅令 總之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에 의해 명분상 국문의 위상을 드높였고, 이듬해 5월 개정된 칙령에서는 “法律勅令은 다國文으로써本을삼고漢譯을附하며或國漢文을混用함”과 같이 법령 자체를 국한문으로 발표하여 국한문 혼용의 典範을 보여줬다. 이 두 번째 칙령에 의하여 한글이 비로소 한국 사회의 공용 문자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sup>5)</sup> 이 칙령은 사실상 公文式의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다. 그 文面으로 보아 그 뒤 주로 국문체가 관용 문서에 사용되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을 터인데, 이런 노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 시대의 흐름이 거세었지만, 여전히 한문이 사용되었고, 국문체는 처음에는 상당히 사용되었으나 차츰 그 사용이

5) 고영근(1983b),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5집, p. 7.

위축되어 갔다. 그리고 하나의 추세로서 국한문체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갔다. 1908년 2월 6일 『官報』(3990호)에 실린 「官廳事項」은 그 무렵의 관용 공문의 실태를 잘 보여 준다.

從來 公文書類에 使用호는 文字를 國漢文을 交用치 아니호고 或純漢文으로 調製호며 吏讀를 混用함이 已違規例이옵고 且外國人으로 本國 官吏된 者가 或其國文을 專用호며 一般 解釋上에 疑誤호 慮가 有호는디 러 規式에 違反되겟습기 左開 條件을 設定 施行호 事로 閣議에 決定호야 內閣 總理大臣이 各部에 照會를 發호

一.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호고 純國文이나 吏讀나 外國文字의 混用함을 不得호

一. 外國 官廳으로 接受호는 公文에 關호야만 原本으로 正式 處辨을 經호되 譯本을 添付호야 存檔케 호

이 의결 사항은 그 당시 公文書類의 문자 표기에 큰 혼란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이 때에 와서는 위에 인용한 1894년의 칙령이 완전히 잊혀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마치 國漢文體가 유일한 합법적인 문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때에 와서 ‘純國文’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충격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官廳事項」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때의 관리들 중에는 아직도 ‘純漢文’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國漢文 混用體’로 공문서의 형식을 통일하려는 것이 이 ‘官廳事項’의主旨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설은 국문(언문)으로 표기되었고 시(시조나 가사)에는 한자가 混用되어 왔다. 이 전통이 開化期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어도 소설의 문체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은 속단임을 면치 못한다. 20세기의 처음 20여년 간 우리나라 소설의 문체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이다. 이 진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소설이 경험한 전통의 단절에서 온 것이었다. 전통이란 단절될 수 없는 것이요, 이른바 신소설 이후의 작품들이 크게 보아 고전소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들이 이런 전통적 인식보다는 日本의 模型에 사로잡힌 결과, 문체에 있어서까지 일본의 것을 본뜨게 되었던 것이다.

이인직은 1906년 『萬歲報』에 제목이 있는 ‘소설 단편’을 連載하면서 국문과 한자를 혼용했는데 그 첫머리에 “이 소설은 국문으로만 보고 한자음으로는 보지 말시오.”라 註記하고 있다. 이제 그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웃더 좁은길 저리꾸부러 이리꾸부러 / 가다보면 마किन길 돌린길  
如何한 夾路이 彼曲지고 此曲저서 行看則窮路, 오가서 보면 또 通路  
이라.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日本의 ‘후리가나’(한자 옆에 讀法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음) 방법을 따른 것이다. 음으로 읽거나 새김으로 읽거나 구별하지 않고 그 독법을 小活字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이인직이 소설을 일본에서 배웠음을 말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같은 해에 『血의 淚』를 만세보에 발표했다 할 때에도 이인직은 이와 같은 표기를 채택했었다. 이듬해(1907) 이 작품을 金相萬書舖에서 책으로 간행했을 때에는 한자는 모두 빼고 국문체로 고쳤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편소설이 이 뒤에 예외 없이 국문체로 표기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장편과 단편이 표기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은 흥미있는 사실이다.<sup>6)</sup>

단편소설이 오랫동안 국한문체에 의해서 지배된 사실은 문자사용의 역사에서 특기되어야 할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광수는 『少年』에 발표한 「獻身者」(3년 8권, 1910), 『靑春』에 발표한 「金鏡」(2, 1914), 「少年의 悲哀」(8, 1917), 「어린 벗에게」(9, 10, 11, 1917) 등을 모두 국한문체로 썼다. 1917년 『每日新報』에 연재한 장편소설 「無情」에서는 첫 회부터 완전한 국문체를 택하였고 「開拓者」의 경우에도 그랬는데, 단편을 쓸 때에는 국한문체를

6) 이기문, 앞의 글, pp.68~75 참조.

택했던 것이다. 이는 그 뒤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편 소설에서 국문체가 확립된 것은 1924년 이후의 일이다.<sup>7)</sup>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편소설에서는 일찍 국문체가 확립되었는데 단편소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장편은 고전소설과의 연결이 직접적이어서 국문체의 전통을 곧 이어받게 되었으나, 단편은 西歐文學에서 들어온 새로운 형태로서 우리나라 소설의 전통과 잘 연결되지 않았고, 그 압축된 형식에는 국한문체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단편소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한자를 혼용한 사실에서 영향을 받았음도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新聞·雜紙, 官用公文, 文學作品(小說) 등에서 國漢文混用體 혹은 國文體 등으로 새로운 문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한문체를 누구보다도 먼저 主唱한 사람이 유길준임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가 이 문체의 근거를 우리나라의 『七書諺解』에 두었음을 자신이 말하고 있으나, 그가 일본의 문자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의 증거로 그가 한자를 '訓讀'할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가 저술한 『勞動夜學讀本』(1908년 7월)에서는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사람 하늘 짜                      신령  
 人은 天과 地 사이에 가장 靈호니라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인직의 초기 신문 소설의 문체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한문체의 발달에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한 것은 이광수였다. 그는 일찍이 李寶鏡이란 이름으로 『太極學報』(21호, 1908년 5월)에 쓴 '國文과 漢文

7) 이기문, 앞의 글, pp. 74~75 참조.



의 過渡時代'에서 세 가능성(1. 漢文 專用, 2. 國文과 漢文 並用, 3. 國文 專用)을 제시하고 “一時的 困難”을 무릅쓰고라도 ‘3’을 택하는 것이 善策임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1910년 7월에 『皇城新聞』에 기고한 ‘今日 我韓 用文에 對하야’에서는 국한문체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광수는 국어문장에 관한 관심이 至大하여 ‘文學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년 11월)와 ‘懸賞小說 考選餘言’(靑春 12호, 1918년 3월)에도 그의 주장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글에서도 그는 “한문에 국문으로 따를 단 듯한” 당시의 국한문체를 비판하고 ‘時文體’ 즉 현대어를 그대로 글로 쓸 것, “國漢文을 用하더라도 말하는 模樣으로 最히 平易하게 最히 日用語답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문체의 발달에 누구보다도 크게 공헌한 사람은 주시경이었다. 그가 『독립신문』의 국문을 직접 담당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신문에 발표한 ‘국문론’에서 국문체의 理論的 根據와 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말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는 여기서 국문으로만 쓰는 것의 이득을 여러모로 설명하고,

한문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한문의 음뎌 취하야 써서 노은 고로 흔히 열즈면 일곱이나 여덟은 몰으나니 차아리 한문 글즈로나 쓸 것 곳트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나 시원이 뜻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한문을 몰으는 사람에게는 엇지허리오 이런즉 불가불 한문 글즈의 음이 조선말이 되지 아니한 것은 쓰지 말아야 올을 것이요…….

그는 먼저 한문을 그대로 국문으로 옮겨 놓은 듯한 그 당시의 국문체 문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 우리말이 된 한자어만을 써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즉 ‘강(江)’이나 ‘산(山)’과 같이 이미 국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문체는 국어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니 言文一致를 이룩하는 기본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2.2. 正書法の 確立과 國語·國文整理運動

개화기 이후 날로 國文愛用熱이 높아지자 제일 먼저 눈에 뜨인 것이, 16세기 以來로 통일 없이 내려온 純國文體의 표기 방식이었다. 이에 통일을 기하고자 제일 먼저 提議된 것이 姜璋(號 古權子 또는 秋琴)의 『擬定國文字母分解』(1869)였으며, 그 뒤를 이어 李鳳雲의 『국문정리』(1897)가 나왔다. 여기서는 李鳳雲의 『국문정리』부터 시작하여 전개된 정서법의 확립과 國語·國文整理運動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1. 李鳳雲의 『국문정리』

『국문정리』(1897)의 내용은 크게 ‘소리’와 ‘말본’의 두 대목으로 갈라지나, ‘소리’의 연구도 결국은 表記法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평소에 우리 국민들이 文明開化하는 때에 갖는 國語·國文觀이 낮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말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을 구하려 힘쓰는데, 하물며 자기말을 배우지 않음이 얼마나 수치일까 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교육시킬 적에는 우리말과 서양인들의 말과의 차이점을 발음기호에 두고, 우리말에 짧은 소리표나 긴 소리표가 없는 대신 傍點表나 글자 위에 ‘-’표를 하여 장음임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諺文玉篇의 編纂으로 국문의 이치와 자모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行文하도록 하였다.

……문명의 제일 요긴한 것은 국문인데 반절이치를 알 사람이 적기로 이치를 궁구하여 언문옥편을 만들어 조야에 발행하여 이왕 국문을 안다 하는 사람도 이치와 자음과 청탁과 고저를 분명히 알아 行文(作文)케 하고 동몽도 교육하면 우리나라 글이 자연 밝을 것이요, 독립 권리와 자주 사무에 제일 요긴할 것이니……8)

8) 『獨立新聞』 1897년 3월 1일자 廣告面

이와 같이 국문을 아는 사람도 子母의 理致와 음의 淸濁, 음의 高低, 발음기호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울러 이는 國語·國文의 普及과 國語·國文整理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活力素가 되었다.

## 2.2.2 尹致昊의 玉篇編纂

國語·國文整理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國文玉篇編纂이 급선무임을 주장한 사람은 주시경 외에 윤치호가 있다.

獨立新聞社長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신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 국어를 활용하도록 國文玉篇編纂을 示唆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조선말을 공부한 일이 없는 고로 쓰기를 규칙없이  
를 하니까 대단히 모호하고 착란나는 일이 많이 있으되, 만일 말을 공부  
를 하여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옥편을 가지고 사람마다  
공부를 하여 전일한 규모가 생길 터이니……9)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있는 국어운동가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도 공통적으로 時急하게 느꼈다. 그 중 게일(James S. Gale)은 우리 말을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조선어와 영어를 실은 옥편을 1,300여장에 이르는 龐大한 책으로 엮어 조선어 밑에 영어로 주를 내고 책 끝에는各色 艱요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 2.2.3 周時經의 國文論

『獨立新聞』에 『國文論』을 게재한 주시경은 22세 때부터 배재학당 내 학생들 조직인 '협성회'의 典籍 및 著述員을 지냈으며, 또한 독립협회에도 가입하여 독립신문사 會計事務兼 校補로 일했다.

1896년 5월 신문사 안에 '國文同式會'라는 이름으로 國語·國文整理를

9) 『獨立新聞』 1897년 5월 27일자 雜報面.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正書法의 통일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897년 4월 22일자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독립신문』에 낸 논설에서 국어를 존중하고 한문이나 영문보다 우수한 글인 국문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 1905년 상동 교회의 청년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우리 말·글의 연구, 교육, 정리 및 보급 운동에 모든 정성을 쏟았다. 1908년에는 동지들과 ‘국어 연구 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국어 연구에 역사적인 큰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탁월한 수제자들을 많이 길러 내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1914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대한국어 문법』(1906), 『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1910), 『조선어문법』(1911), 『말의 소리』(1914) 등의 많은 저술들을 남겼는데, 국어에 관한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연구했다. 기본방향은 국어연구의 민족적인 사명을 확인하고 재래의 성운학과 서양의 문법학을 수용한 토대 위에서 국어의 현상을 그 자체로 해명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자는 것이다. 주시경은 주권이 나날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독립을 수호하는 데 국어운동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밝히는 이론도 몇 차례 전개했다. 『국어문법』에 이르러서는 한 나라가 독립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영토·국민·언어라고 하고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고 그 세 가지 기본 요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곧, 영토는 독립의 터전이고, 국민은 독립의 주체이며 언어는 독립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보아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 存否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런 관점을 어문생활의 실제 문제와 깊이 연결시켜, 국문을 공식적인 글로 채택하면서도 문법이 정비되지 않고, 표기법이 혼란되어 의사 전달에 지장이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염려했다. 주시경은 우선 순국문으로 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문에 의거하지 않고 어문생활을 원활하게 하자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순국문 문장의 모범적인 예를 보이고자 했는데, 나중에는 한자어를 고유

어로 대치하는 시험이 지나쳐서 널리 이해되기 어려운 독특한 표현을 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띄어쓰기를 정착시키고 표기법 제정하려고 한 점, 새로운 술어를 창안하고 서양에서도 제안되지 않은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한 점, 말하는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고 ‘홀소리’와 ‘닷소리’의 결합방식을 분석한 점, 품사론과 통사론의 양면에 걸쳐 문법연구를 정밀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언어학의 ‘形態素’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의 최소 단위 ‘닛씨’를 발견한 점 등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주시경의 노력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문을 가다듬어 독립을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동안에 국권을 상실했으며, 강습회를 열어 국문 사용을 가르치는 데 계속 열을 올려도 누적된 혼란을 시정할 수 없었다.

#### 2.2.4. 國文研究所의 國文研究

1905년에 지식영의 『新訂國文』이 국가적으로 공식 제의된다. 당시 醫學學校의 교장이었던 지식영은, 표기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에 『신정국문』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光武 9년(1905) 7월 19일에 학부의 공식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인 표기법을 공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9개 항목에 걸쳐 五音의 명칭과 象形制字를 설명하고, 중성 11자 중에서 ‘·’를 없애는 대신 ‘二’를 새로 쓰자고 하였다. 또 ‘비뉜소리’를 쓰지 말고, 방점은 ‘·’(一點)과 ‘無點’으로 고저를 표시하여 전자로 상성과 거성을, 후자로 평성과 입성을 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이 느닷없이 공포되자 크게 물의를 일으키어 정부에서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국문연구소는 『신정국문』이 공포된 지 2년 후인 1907년 7월 8일에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李載崑의 주청으로 학부의 한 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학무국장 尹致旼을 중심으로 어윤적, 이능화, 이억, 주시경, 이종일, 지식영 등이 위원이 되어 정서법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국문자에 대하여 연



愛國啓蒙運動의 일환이었다.

(2) 新聞인 경우에는 『獨立新聞』이 국문체로 발간한 이후 『미일신문』, 『경성신문』, 『대국신문』 등이 국문체로 간행됨으로써 국문 전용으로 문체 발전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국한문 혼용 간행으로 국한문체가 우세해졌다. 하지만 『大韓每日申報』의 경우에는 민중의 독자를 의식하여 국문판으로도 발간하였다.

(3) 잡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국한문혼용을 채택하였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는 국문체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도 국한문체가 일반적이었다.

(4) 관용 공문인 경우에는 칙령에 의해 처음에는 국문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국한문체가 일반화되었다. 1908년 2월 6일 『官報』(3990호)에 실린 『官廳事項』은 그 무렵의 관용 공문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데, 국한문체로 공문서의 형식을 통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 소설의 경우, 장편소설은 국문체가 일찍 확립되었으나, 단편소설은 국한문체로 쓰이다가 1924년 이후에야 국문체로 확립되는데, 이는 단편소설이 西歐文學에서 들어온 새로운 형태로서 우리나라 소설의 전통과 잘 연결되지 않았고, 그 압축된 형식에는 국한문체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2.2.에서는 正書法의 確立과 國語·國文整理運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李鳳雲은 『國文整理』를 통하여 자모의 理致와 음의 淸濁, 음의 高低, 발음기호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책을 저술하였다.

(2) 尹致昊는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 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國文玉篇을 編纂하고자 하였다.

(3) 周時經은 국문 사용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였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存否와 盛衰를 좌우한다고 보아 國語·國文普及活動에 앞장섰으며, 통일된 표기법을 이루기 위해 정서법 확립을 위한 연구

에 심혈을 기울였다.

(4) 1907년 설립된 국문연구소는 1909년까지 약 2년 반 존속되어 『國文研究議定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된 보고서를 마련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핵심어: 개화기, 국어·국문운동, 국한문 혼용체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신항(1992).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김형규(1984). 『國語史概要』. 일조각.  
조동일(1992). 『한국문학통사(제2판) 4』. 지식산업사.

#### 2. 논문

- 고영근(1983a). “開化期の 國語研究團體와 國文普及活動-「한글모죽보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30. 일지사.  
고영근(1983b).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5집.  
김민수(1962). “周時經의 業績-周時經論을 위한 序論-”. 『국어학』 제1집. 국어학회.  
김병학(1982). “개화기 국어교육적 문화운동 연구-諸 新聞記事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이기문(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한국학보』 5. 일지사.  
이기문(1984). “開化期の 國文使用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 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병근(1978). “愛國啓蒙主義時代の 國語觀-주시경의 경우-”. 『한국학보』 12. 일지사.
- 이용호(1980).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 『어문학』 제40집. 한국어문학회.
- 신용하(1977). “周時經의 愛國啓蒙思想”. 『한국사학회연구』 제1집
- 최관진(2003).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정책의 변천 연구-開化期부터 日帝強占期까지-”. 『청람어문교육』 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Abstract>

The Aspects and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ovement during the Flowering Time in Korea

Kang Young-sun

There we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uring the flowering time, which is about the early of 20th century in Korea. Those were the advancement of Korean literary style and the move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is paper, those aspects mentioned above will be examined in more detail.

In 2, there are mentioned th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ovement during the flowering time in Korea.

In 2.1, the 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iterary style and the move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uring the flowering time is explained. in the period, the move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as a kind of patriotic and enlightening

movement just like what Lee Bong Wun and Joo Shi Kyoung did. They were engaged in the patriotic movement as a writer and a scholar of Korean language. During this time, most people were arguing about what kind of language should be used. Some people said that only original Korean character should be used, but others said that Korean and Chinese character should be used at the same time.

In 2.2, there is the relation said about the fair and right writing rule and the move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productive outcome of this period about Korean language were the "The Rearrangement Korean Language(1897)" written by Lee Bong Wun, and "The Study of Korean Language(1907-1909)" b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Many successful results were also achieved in the area of Korean language during this period.

- Keywords: flowering tim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ovement, Korean and Chinese Character